

은행 채용문 하반기 더 좁아진다

수익성 악화·구조조정 여파 대부분 계획 없어

광주은행·전북은행 각각 30·35명 선발 계획

기업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확대 여파로 은행 채용 시장까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까지 더해지며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권 채용문이 더 조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상반기 대출 공채를 실시한 것도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JB금융지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각각 30명과 35명의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은 올해가 절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올해 채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작

년 연초에 은행들이 앞다퉀 채용 계획을 발표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420명의 대출 신입사원을 선발한 국민은행은 상반기 채용 계획을 비롯해 아직 채용 규모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개인금융서비스직군 140명을 채용한 우리은행도 하반기 채용 시기만 정해 놓고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외에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상반기 대출 공채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업계의 일반적 공채가 대폭 줄어든 것은 시중은행들의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미진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총당금 적립 부담마저 안고 있다. 국내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올 1분기 1.55%로 역대 최저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 되면 기존 은행원의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있는 JB금융지주를 제외한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아직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구조조정 여파로 은행들이 하반기 채용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졌다 점이다. 해운·조선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총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빨갯살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 은행권이 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8개 조선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78조775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출채권 대부분을 총당금 적립이 필요 없는 ‘정상’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향후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등급을 낮추게 되면 막대한 총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러자 은행들이 올해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각 은행들은 하반기 상황을 보고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진행되는 채용도 대출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기 보다 경력단절 여성,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등 일부 특별 채용에만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30명 채용에 이어 올 해도 30명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2013년 하반기 정규직 30명을 채용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정규직 30명을 채용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실적 악화로 인해 보수적 경영을 짜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격적 경영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1.12 (+27.72)
- ↑ 금리 (국고채 3년) 1.36% (+0.03)
- ↑ 코스닥 688.95 (+10.09)
- ↓ 환율 (USD) 1160.80원 (-11.90)

공공요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의 두배

5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0.8% ↑...공공서비스는 2.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0~1%대에 머물고 있지만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어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와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다.

2010년 1월(2.1%)을 정점으로 둔화했던 월별 공공서비스 물가는 5년9개월만인 작년 10월(2.0%)부터 2%대에 올라선 뒤 8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는 2008년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들어 1.2%를 보이며 소비자물가(0.7%)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올들어 5월까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가량인 2%대를 기록하며 2009년(2.0%)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대중교통 요금 등 광주시 공공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안은

13.7%에서 최대 17.2%까지다. 앞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복수제 제시된 인상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과 200원이 오를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조정안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와 통합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요금은 2013년 3월 중형기준으로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됐다. 3년간 동결된 만큼 인상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밖에 도시가스는 2013년부터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동결해 오던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료는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3년부터 인상되고 있는데다 2017년까지 오를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것이 공공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시내버스료를 150원, 지하철료를 200원을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이 9.6%(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원) 올랐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모바일 결제 시대

국민 79% “이용해봤다”

카카오페이 1천만명 돌파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편리함을 앞세워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침투하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페이(pay) 사업자들은 가입자의 거래액을 늘리는 한편 간편 송금, 멤버십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DMC 미디어의 “2016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79.2%로, 전년 같은 기간(72.1%)보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86.9%는 ‘편리함’을 이유로 꼽았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을 늘리겠다는 답변도 76.4%에 달했다.

지난 2014년 9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의 경우, 출시 1년 9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 역시 총 85만 장 이상 발급됐다.

‘페이’ 선두주자인 네이버 페이는 7만여 개가 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별도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

IG유틸리티 역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어도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김동섭 연구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용 가스터빈 신뢰성 평가 시험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한전 제공>

한전, 국내 첫 발전용 가스터빈 실험설비 구축

핵심부품 국산화 기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국내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시험설비를 구축해 관련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얻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7일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김동섭 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5개 발전자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용 가스터빈 신뢰성 평가 시험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한전과 발전회사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2013년부터 총 100억원이

투자됐다. 국내에서는 가스터빈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꾸준히 수행했으나 정작 개발 부품을 국내에서 시험할 여건이 안돼 상품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스터빈 블레이드 같은 핵심부품은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등 해외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사용했다.

이 같은 핵심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교체비용이 6000억 원에 달하는 등 국산화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가스터빈의 글로벌 시장 구조는 2014년 기준 GE(40%), 지멘스(35%) 등 해외 메이저 회사가 시장의 85% 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가스터빈 연소시험설비 구축에 이어 신뢰성 시험설비를 구축해 가스터빈 부품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향후 국산화 추진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시험설비 구축으로 연간 수천억 원대의 수입비용을 줄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가스터빈 관련 부품·소재·제작 기업과 항공·우주 산업계에도 개방해 산학연 상생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GDP 대비 소득세 비중 2.5%

3년간 대폭 상승...근로자·자영업자 세부담 늘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납세의무자 수 증가 등으로 세부담 자체가 늘어나는데다 과표양성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원이 걸려 모두 36조8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낸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485조7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소득세(근로세·중

소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그러나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 교수는 “인구 구조상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에 다가가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orea Be Inspired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 ‘휴양하기 좋은 섬 30곳’ 선정
해양수산부 ‘가고싶은 소규모 해수욕장’ 선정
CNN ‘한국의 아름다운 섬’ 선정

Dream Hub GUNSAN

관광은 여름의 시작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던 곳이라 하여
선유도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

7월 2일, 선유도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군산시 • 관광문의 (063)454-3337 /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

●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 **2016.7.2~8.15**